



◇원꽃 문양을 넣은 인테리어 조명등.



◇다과나 과일을 담기에 알맞은 쟁반.

한지의 아름다움 '삶 속으로'

보광 스님, 동국대 갤러리서 '한지공예展' 15~20일

한지는 미술사다. 부드럽고도 질겨서, 엮고 구기고 비트는 등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회화에서부터 종이 공예, 서예, 조소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와 결합해 다양한 형태로 자신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옛날부터 한지는 우리 대용으로 창문에 바르고, 조명등을 만드는데 사용했으며, 부채나 지화, 지폐, 부적 등의 재료로도 사용됐다.

15일부터 20일까지 동국대 갤러리에서 열리는 '보광스님 한지공예전'에 가면 이러한 한지의 우수성과 다양성,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이번 공예전에서는 쟁반, 인테리어 조명등, 3층장, 연꽃등, 문갑 등 한지 공예작품 30여점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생활 공예품들이 주로 전시돼 주부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교한 작품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3개월~6개월만 배우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쟁반 정도는 금방 만들 수 있다.

한지공예품이 완성된다.

이번 전시회를 마련한 보광스님(한지공예가·아산 보광암)은 "사라져가는 한지문화에 대한 아쉬움과 한지의 우수성을 알려 대중들에게 보급시키고자 이번 전시회를 가지게 됐다"고 말한다.

작품을 만들 때 마음을 집중하

인테리어 조명등·쟁반등 30점 전시

우선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쟁반, 문갑 등의 틀을 구입, 합지를 재단 조립해 틀을 완성시킨 후 다시 틀에 맞춰 한지를 재단해 붙이면 된다. 이런 공정에 문양을 오려 붙인 후 코팅을 하면

다보면 삼매경의 상태에 들게 돼 수행의 기쁨을 동시에 맛볼 수 있다는 보광스님은 앞으로 한지 공예 보급을 위한 설명회와 세미나를 계속 열어 갈 계획이다. 011)9135-3512

문화 담당 = 김주원 기자 jkrm@buddhista.com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 합창제에서 '경복궁 타령'을 부르고 있는 부산 불교합창단.

부산불교합창단 '은상'

제7회 국제합창대회 22개국서 44팀 참가

부산불교연합창단(회장 백명숙)이 3월 24일~28일까지 이탈리아 리바 데 가르다에서 열린

제7회 국제합창대회에서 은상 수상했다. '아카펠라 여성합창단'에 출전한 부산불교연합창

창단은 이번 대회에서 '오분향례'를 비롯해 '이따이 나무신 부처님', '경복궁타령' 등 전통문화와 전통민요 다섯 곡을 불렀다. 이에 앞서 열린 개막식 퍼레이드에서는 한복과 태극기, 부채 등 우리 고유의 전통 의상과 소품이 곁게 조화롭게 어우러져 눈길을 끌었다. 외국합창단과 현지인들에게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인터클러 재단이 주최한 이번 합창대회에는 22개국에서 44개 합창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벌였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인터클러 재단은 음악을 통한 세계 청소년선도와 교육, 빈민국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됐으며, 1988년부터는 '무지카 운다'라는 이름으로 이태리와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유럽 전역에서 국제 합창제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리바 데 가르다 국제합창대회는 '무지카 운다' 행사중 하나로 2년마다 열린다.

전북 탕화장 도원스님 지정

탕화 부문선 처음, 33년간 300여점 그려



불화가인 도원스님(53세·김제 청운사 주지)이 6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7호'인 탕화장에 지정됐다.

그것은 탕화에 입문한 계기다. 현재까지 33년동안 스님은 3백여점이 넘는 탕화를 그렸다. 이중 스님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작품은 '전북 태고종 종무원 영산보존회 재발', '제주 원당사 대웅전 불화' '군산 은적사 후불신중탱화' 등이다.

도원 스님은 "참선을 할 때 마음에 들듯이 붓을 잡고 삼매에 들면 환희심 가득한 상태에서 불화에 몰두하

"제주 원당사 대웅전 불화 등 큰 보람"

전북도에서 지정된 무형문화재로 탕화장이 지정되기는 처음이다. 도원스님이 처음 붓을 잡기 시작한 것은 1963년. 불사에 꼭 필요한 탕화를 타인에게 시주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하겠다는 생각에서 정진스님(前 남원 실상사 주지)을 찾아가 사사받은

게 된다"며 "탱화는 단순한 불교미술의 차원을 넘어 경배의 대상인 만큼 손끝의 재주만으로는 뛰어난 불화를 그릴 수 없다"고 말했다. 도원스님은 현재 전북대학교와 전북지역 주요 사찰에서 '불교미술'을 강의하고 있다.

불교 연극 '염화미소' 무대에

진관 스님 각본, 5월 3~12일 명동 창고극장



◇나무꾼이 행자를 거쳐 고승이 돼 가는 과정을 그린 연극 '염화미소'.

효(孝)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동의 근본이다. 그래서 출가를 원하는 이들은 한번쯤 속가의 부모님과 출가라는 대명제 사이에 번민 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출가자의 세속적 갈등과 수행과정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적 번민, 그리고 극복과정 등은 출가자들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삶의 조각들이다. 이런 과정들을 사실적으로 조명하는 한편의 불교연극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무대에 올려진다. '염화미소'라는 제목인 이 연극은 호심이 지극한 나무꾼 행자가 우연한 기회에 스님을 만나 출가하면서 겪게 되는 어머니와의 이별, 출가에 따른 인간적 갈등이 마당놀이 형식으로 펼쳐진다.

5월 3일부터 12일까지 명동 창고극장에서 상연되는 '염화미소'는 진관스님(불교 문화예술진흥기금마련회의회 공동의장)이 20년만에 각본을 썼고, 김대현씨(장작마을 대표)가 연출을 맡았다. 02)775-0535

김민정 발레 첫 창작품

'하늘천 따지2' 공연

13일 대구 대백예술극장

꿈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맘껏 즐기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와 자신의 본 모습을 만나는 이야기는 중국 고사에도 적지 않고 삼국유사에 나오는 '조선의 꿈' 얘기가 서로 김민정의 '구운몽' 춘원 이광수의 '꿈'으로 이어지며 전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번엔 꿈 얘기가 발레로 만들어져 무대에 올려진다. 김민정 발레단이 첫 번째 정기 창작 공연

작품으로 '하늘 천 따지 2'를 공연한다. 13일 대구 대백예술극장 대극장 11층에서 공연 될 이 작품은 서당에서 공부하기 싫어 피를 부러낸 '평거리'가 꿈속에서 선녀같이 예쁜 각서는 물론 백조 고양이 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그만 꿈이 깨어 서당이라는 현실로 돌아온다는 줄거리.

"살의 한 단편이면서 초월적 공간인 꿈을 춤으로 해석하면서 본래 자리로 회귀하여 얻는 강한 자의식을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김민정씨는 '하늘 천 따지 2'를 통해 현실이 아닌 곳에서의 내가 현실로 돌아오는 철학적 순간을 흥과 삶의 애환으로 풀어보고자 이번 무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공연은 오후 3시와 7시 두차례 열린다. 053)473-5134



김흥근이 쓰는 문학속의 불교

고창 선운사에 갔다. 당대를 대표하는 시인인 미당 서정주와 판소리의 증흥조 동리 신재효를 낳은 고창의 산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질마재 아래의 서정주 시인(1915-2000)의 생가와 인근의 미당 시문학관에 들러 시인이 남긴 유물을 살펴보고, 또한 고창 읍내의 모양성을 답사하고 그 앞에 있는 신재효(1812-84)의 집사당에 들러니, 판소리의 가락이 바람결에 실려 전해오는 듯 마음에 흥이 일었다. 우리나라 근대 예술의 최고봉을 이루는 시인과 가락이 이 지방에서 탄생한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호남의 내곡강이라 불리는 선운산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욱 일어났다. 선운사 동구에 이르니 먼저 미당 서정주 시비가 반겨주었다.

선운사 골짜기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 딱결릿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습니다

선운사 하면 입구에서 본당 뒤까지 길게 군락을 이룬 500년 수령의 3천여 그루 동백나무를 빼놓을 수 없다. 마흔 동백꽃이 피기 시작하여 짙푸른 나무마다 온통 빨간

서정주의 '선운사 동구'

막걸리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것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목이 쉬어...

브로치로 뒤덮여 있었다. 그런데 왜 미당은 동백꽃 얘기를 하면서 막걸리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을 끌어들이었을까? 천왕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니 만세루가 앞을 가로막는다. 경내 한복판에 자리잡은 이 큰 건물은 다른 건물들을 짓다 남은 목재를 가져다 지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서 소재를 빌려온 윤대녕의 단편소설이 있다. 사랑을 짓다 실패하고 남은 조각의 인생의 남녀가 이 번듯한 만세루처럼 결국 아름다운 사랑을 이룬다는 내용이다.

선운사에서 도술암까지 난 길은 시냇물을 끼고 있어서 좋다. 오랜 가을로 웬만한 계곡은 모두 물이 말랐지만, 여기는 아직도 수량이 풍부했다.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는 부처님의 법륜처럼 계속 따라오며 귀를 간지럽힌다. 문득 고개를 드니 빨간 동백꽃 한 송이가 눈에 들어오며, 미당의 시가 다시 떠올랐다. 미당의 가슴속에 간직된 동백꽃의 이미지는 흐드러지게 요염한 색과 자태를 지닌 것이었나 보다. 그래서 동백꽃 하면 막걸리집 여자가 떠오른 것인가?

도술암 내원궁의 지장보살님께 참배하고 돌아서 내려오는 길에 마주친 작은 팻말 하나가 화살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안 온 뜻이 다너가소서' '뜨레기 버리지 말라는 뜻이겠지. 정말 멋들어진 경구였다. 절정에 이르렀을 때 미련을 싹 잡고 과감히 떨어지는 모습에서 '안 온 뜻이 다너가' 상징을 읽어내면 너무 멋진 사람이 될까? 나는 땅에 떨어져 뒹구는 붉고 소담스런 동백꽃잎을 정성스레 사 진 찍었다. 제목은 '안 온 뜻이 다너가'德無所住而生其心'로 붙여볼까 한다. ■문학평론가

"자비의 등 지혜의 등" - 손 불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연등의 종류별 모델가 등이 있습니다. • 각 색깔은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일등)

시공연등용 전선 케이블 ▼



만일등

팔모접등



팔모조립등



공단등



종 · 등 · 신제품 · 실용신안 등록 · 의정출원

• 종 소리는 지옥 중생을 구제하고 악령과 고령을 응축해 없애고 있어 옛 사람들은 초파일 전에 종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뜻과 전하고서 현대연등제작시 예시는 부처님오신날, 각종 법회 및 행사에 쉽게 장엄할 수 있는 신제품 종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연꽃등 제조처 (특허 제122168호) / 팔각형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의 외관특허 다수 보유업체 ◆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031) 792-6288, 794-4055
전역 홈페이지: www.chanduk.com
경기도 하남시 준곡동 180-1 e-mail: chanduk21@hanmail.net